

고2 문학
비상

1(1). 모란이 피기까지는 - 기출 문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본 콘텐츠의 무단 배포 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 이 시에서 의미상 서로 대응되는 시어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 ① 모란-봄-보람 ② 꽃잎-모란-봄
- ③ 봄-꽃잎-슬픔 ④ 모란-꽃잎-슬픔
- ⑤ 봄-설움-슬픔

2. ㉠~㉨ 중 여성적 어조와 관계가 먼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3. 이 시에서 봄을 기다리는 화자의 자세가 오래고 숙명적임을 암시하고 있는 시어를 쓰시오.

4. <보기>의 밑줄 친 시어 중, ㉠과 시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보기>

까마득한 날에 /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山脈)들이 /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에도 / 차마 이곳을 범(犯)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 부지런한 계절(季節)이 피어선 지고 /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 매화 향기(梅花香氣) 홀로 아득하 /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 이 광야(曠野)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이육사, '광야'

5. 이 시의 표현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화 형식을 통해 청자와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순을 바꾸어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감각적인 부사어를 사용하여 상실감을 표출하고 있다.
- ⑤ 작품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6. 이 시의 화자로부터 이끌어 낼 수 있는 삶의 교훈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적 태도
- ② 미래에 대해 낙관적 희망을 기대하는 태도
- ③ 늘 자신을 반성하는 자기 성찰(省察)의 태도
- ④ 세속을 벗어나 자연에 귀의하는 초월적 태도
- ⑤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모란이 저 버림과 함께 모든 소망이 사라져 버린 슬픔을 의미한다.
- ② ㉡: 봄과 모란을 분리하여 판단하려는 작가의 태도가 담긴 표현으로 소망하던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져 버렸음을 의미한다.
- ③ ㉢: 모란의 소멸은 모든 보람의 무너짐을 의미하고 따라서 소망의 소멸은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기다린 세월의 덧없는 상실을 의미한다.
- ④ ㉣: 모란을 잃은 슬픔의 깊이를 과장한 표현이다.
- ⑤ ㉣: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그 뒤에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8. ㉠, ㉡의 시어가 지니는 의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사과 : 배 ② 부장 : 과장
- ③ 출석 : 결석 ④ 학생 : 여학생
- ⑤ 악어 : 악어새

9. ㉣에 사용된 표현 방법을 두 가지 쓰고(1), 함축적 의미를 50자 이내로 서술하십시오(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0.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말 어순을 바꿔서 의미를 강조함
- ② 삶의 근원적 비애에 따른 체념을 보여줌
- ③ 여성적 어조로 자연스러운 호소력을 느끼게 함
- ④ 인간의 삶을 자연 현상과 결부시킴
- ⑤ 언어를 조탁하여 곱고 섬세하게 표현함

11. 이 시의 ㉠“모란”과 함축적 의미가 같은 시어를 두 가지 찾아 쓰라.

12. 이 시의 ㉡“찬란한 슬픔의 봄”과 같은 표현 방법이 들어 있지 않은 것은?

- ①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③ 외로운 황홀한 심사
- ④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⑤ 괴로웠던 사나이 /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똑똑 떨어져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13. 다음 <보기>는 위 시의 주제 의식을 설명한 글이다. ()안에 순서대로 들어갈 단어의 짝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영원한 하늘나라의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것은 소멸하지도 죽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지상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아무리 보존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 태어난 것은 언젠가 죽어야 하며, 피어난 것은 마침내 떨어져야 한다. 태어남과 피어남이 기쁨이라면 ()과 ()은 슬픔이다. 그러므로 산다는 것은 이러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맛보며 주어진 시간을 누리는 일이다.

- ① 재생 - 죽음 - 사라짐 ② 영원 - 죽음 - 떨어짐
- ③ 부활 - 삶 - 떨어짐 ④ 재생 - 삶 - 죽음
- ⑤ 영원 - 죽음 - 상실감

14. ㉠은 객관적인 자연 현상보다는 화자 자신의 주관적 진실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다음 중 ㉠과 같은 표현이 들어있지 않은 것은?

- ①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 우에 서다.
 - 이육사, <절정>
- ② 배가 오른다, 바람이 불 적마다 슬프게 슬프게 삐걱 거리는 배가 오른다.....
 - 주요한, <불노리>
- ③ 크고 길고, 널으게 뒤덥흔 바 더 푸른 하늘
 더것은 우리와 틀님이 업서,
 덕은 시비 덕은 싹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최남선, <해에게서 소년에게>

- ④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시른 비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농총도 근코 뚝대도 것고 치도 싸지고.....
 -작자미상, <사설시조>
- ⑤ 어서 너는 오너라, 별들 서로 구슬피 헤어지고, 별들 서로 정답게 모이는 날, 흩어졌던 너이 형 아우 총총히 돌아오고.....
 - 박두진, <어서 너는 오너라>

15. 위 시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용 : 제재인 '모란'은 시적 화자의 삶의 보람이나 절대적인 미(美)를 상징하는 것 같아.
- ② 용철 : 기다림-상실-기다림이라는 순환 구조가 수미상관 형식을 통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아.
- ③ 수영 : 유미적(唯美的)이고 낭만적인 순수시의 전형으로 반어적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야.
- ④ 정주 : '찬란한 슬픔의 봄'이라는 모순형용의 방식을 통해 주제를 강조하고 있어.
- ⑤ 지하 : 일체의 관념을 배제하고 정서와 시어 및 음악성을 중시하는 1930년대 시문학파를 대표하는 작품이라 할 만해.

16. ㉡과 ㉢은 물리적으로는 '시간'을 의미하지만, (가)에서는 서로 다른 시적 의미를 갖는다. 두 시어의 표현 의도를 시적 화자의 심리 상태와 관련지어 서술하십시오.

17.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어미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획득하고 있다.
- ② 자연현상과 인간의 삶을 연관시켜 표현하고 있다.
- ③ 기다림과 만남의 구조로, 슬픔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 ④ 수미상관의 구조로 화자의 소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우리말의 어순을 바꿔 의미를 강화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한양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18. 위 시 【 】 부분에서 느껴지는 정서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내 마음 아실 이 / 내 혼자 마음 날같이 아실 이 //
 그래도 어디나 계실 것이면,
 - 김영랑, <내 마음 아실 이>
- ② 묻혀서 사는 이의 / 고운 마음을 // 아는 이 있을까
 / 저허하노니 // 꽃이 지는 아침은 / 울고 싶어라.
 - 조지훈, <낙화>
- ③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 봄 한 철 / 걱정을
 인내한 / 나의 사람은 지고 있다.
 - 이형기, <낙화>
- ④ 강물 아래로 강물 아래로 / 한 줄기 어두운 이 강물
 아래로 // 검은 밤이 흐른다. / 은하수가 흐른다./
 - 신석정, <어느 지류에 서서>
- ⑤ 산새도 날아와 우짖지 않고, / 구름도 떠가곤 오지
 않는다. // 인적 끊인 곳 / 홀로 앉은 가을 산의 어스
 림.
 - 박두진, <도봉>

19. 위의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어순의 변화를 통해서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이미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③ 서정적 자아의 정서를 나름대로 정리해서 차분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연과 결부시켜 인간사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 ⑤ 특정한 어휘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20.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현재보다 나은 미래의 삶을 염원하고 있다.
- ② 고백적 어조로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있다.
- ③ 소망의 실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
- ④ 자연과 인간이 교감하는 삶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다.
- ⑤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욕망을 드러내고 있다.

2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실의 슬픔을 여성적인 어조로 노래하고 있다.
- ② 점층적 구성으로 화자의 안타까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수미상관의 형식으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모순형용을 통해 봄의 양면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22. 이 시에 나타난 시인의 작품 경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섬세한 정서의 흐름을 중시
- ② 관념적인 목적 의식을 지향
- ③ 맑고 깨끗한 감성의 세계를 추구
- ④ 언어의 미적 구조와 음악성을 중시
- ⑤ 순수한 탐미주의적 시 정신을 표현

23. 이 시의 화자가 추구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국의 광복 ② 생명의 본질
- ③ 참된 자아의 실현 ④ 절대적 가치의 미
- ⑤ 전원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

24. ㉠이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 ① 삶의 보람이 태동하는 순간
- ② 삶의 보람이 최고조에 달한 순간
- ③ 삶이 보람이 무참히 꺾이는 순간
- ④ 삶의 보람이 무르익어 가는 순간
- ⑤ 계절의 변화로 삶의 보람이 상승하는 순간

2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세월의 무상함을 내포한 표현이다.
- ② 사투리를 사용한 정감어린 표현이다.
- ③ 기다리는 나날들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 ④ 화자의 숙명적 기다림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 ⑤ 시어를 곱고 섬세하게 다듬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26. <보기>를 참고로 할 때, ㉢과 같은 발상과 표현을 사용한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은 모순형용에 의한 표현이다. 모순형용은 수식하는 말과 수식을 받는 말 사이에 모순이 생겨, 겉으로는 불합리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적 진실성을 지니고 있다.

- ①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나
- ②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 ③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에는
- ④ 부처님처럼 즐고 있는 구자명씨
- ⑤ 어마씨 그리운 솜씨에 향그러운 꽃지짐.

27. ㉣ ~ ㉦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 ① ㉣: 언제나 모란이 피기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 ② ㉤: 시적 화자가 갈망하는 세계이다.
- ③ ㉥: 봄의 막바지로 봄의 상실을 의미한다.
- ④ ㉦: 화자의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 ⑤ ㉧: '우웁니다'의 전라도 방언이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윈 설움에 잠길 테요.
 오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덤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뺨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부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삼백예순 날 하냥 섭섭해 우웁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이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28. 이 시인의 작품 경향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언어의 조탁 ② 목적 지향의 시
- ③ 유희주의적 특성 ④ 시의 음악성 강조
- ⑤ 섬세한 정서의 흐름

29.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순 형용을 통해 봄의 양면적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 ② '모란'은 순수한 소망의 대상, 혹은 심미적 대상을 상징한다.
- ③ 섬세한 여성적인 어조로 상실의 비애와 비탄을 노래하고 있다.
- ④ 도시적 감각의 시어를 사용하여 정제되고 세련된 느낌을 갖게 한다.
- ⑤ '뚝뚝'이란 부사어를 '모란'이 지는 것을 형용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시적 화자가 느끼는 아쉬움 슬픔의 감정을 드러내 준다.

30. 이 시에서 시인이 추구하는 세계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시어 둘을 찾아 쓰시오.

31. 이 시의 시적 구조를 순환론적 세계관의 표현으로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기다림 → → 기다림

32. ㉠의 표현 기교와 다른 하나는?

- ①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②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 이어니
- ③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④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 / 저 푸른 해원(海原)을 향하여 흐드는 / 영원한 노스탤지어의 손수건.
- ⑤ 아아, 강물은 웃는다. 웃는다. 괴상한 웃음이다, 차디찬 강물이 껌껌한 하늘을 보고 웃는 웃음이다.

33. 이 시에서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참된 자아 ② 생명의 본질
- ③ 조국의 광복 ④ 전원적인 세계
- ⑤ 절대적 가치의 미(美)

정답 및 해설

1. <답> ①

이 시에서 ‘모란’은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으로 ‘봄’과 동일시되며 그것은 화자가 찾고자 하는 ‘보람’과 유사한 의미이다.

2. <답> ③

이 시는 ‘~테요.’, ‘~우웁나다’ 등의 여성적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무너졌느니’는 여성적 어조로 보기 어렵다.

3. <답> 아직

시인이 갈망하고 그리워하는 세계는 모란이 활짝 핀 봄이다. 그러나 ‘아직’이라는 부사어를 통해 봄을 기다리는 시적 화자의 자세가 오래되고 숙명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4. <답> ⑤

㉠ ‘봄’은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이다. <보기>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노래하고 있는 작품으로 시적 화자가 소망하는 대상을 의미하는 시어는 ‘초인’이다.

5. <답> ②

이 시는 화자의 소망을 애상적 어조로 고백하고 있을 뿐, 대화 형식을 통해 청자와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6. <답> ⑤

시적 화자는 모란이 천지에 자취도 없는 삼백예순 날동안을 섭섭해 울면서도 모란이 피기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하고 있다. 시의 화자의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인내심을 가지고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태도’를 그 교훈으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7. <답> ②

㉡은 모란이 저 버림으로 인하여 내가 소망하던 보람이 서운하게 무너져 버렸음을 뜻하고 있다. 여기에서 봄과 모란을 동일시하는 작자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봄과 모란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작가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③

㉢의 ‘비로소’는 소망의 좌절을 의미하며, 소망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아직’과 상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대립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선택하면 된다.

9. <답>

(1) 역설법과 도치법, (2)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환희’를, ‘슬픔’은 ‘모란이 지고 났을 때의 설움’을 의미하는데, 이는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10. <답> ②

11. <답> 봄, 보람

12. <답> ②

13. <답> ②

14. <답> ④

15. <답> ③

16. <답>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나날이 길다는 것을 강조한다.

‘한 해’를 ‘삼백예순 날’과 같이 많은 숫자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그만큼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7. <답> ③

18. <답> ②

19. <답> ③

20. <답> ③

일 년 중 오월 며칠 동안만 피어 있는 모란처럼 화자에게 삶의 보람은 매우 짧고 허망한 대상이다. 화자는 이 허망한 소망 때문에 일 년의 거의 대부분을 벅찬 기대와 슬픔 속에서 보내는 것이다. 그러나 생명의 소멸은 재생으로 이어지기에 화자는 모란이 다시 피는 봄이 올 것임을 믿고 기다린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소망의 실현에 대한 기다림을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1. <답> ②

이 시는 수미상관의 구성과 모순형용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음성 상징어를 통한 감

각적인 묘사와 여성적 어조로 상실의 슬픔을 노래하고 있다. 그러나 점층적 구성으로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33. <답> ⑤

22. <답> ②

이 시는 일체의 관념과 목적 의식을 배제한 예술 지상주의적 성격이 짙은 작품이다. 그러므로 '관념적인 목적 의식의 지향'은 이 시인의 작품 경향으로 적절하지 않다.

23. <답> ④

이 시의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인 모란은 '삶의 보람'이며, 또한 모든 아름다운 것의 대유인 '절대적인 가치의 미(美)'를 의미한다.

24. <답> ③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대상인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은 삶의 보람이 무참히 무너져 버린 순간을 의미한다.

25. <답> ③

'삼백예순 날'은 모란을 기다리는 서러운 정감을 표현한 시어로 '한 해'라는 표현과 대비되어 모란이 다시 피기를 기다리는 나날들을 강조하고 있다.

26. <답> ①

㉠은 '찬란하다'와 '슬픔'이 함께 쓰여 서로 모순인 모순형용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도 '외롭다'와 '황홀하다'가 서로 모순인 모순형용에 해당한다.

27. <답> ④

'㉠하냥'은 '늘, 항상'의 뜻을 나타내는 방언으로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나 화자의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기다림의 정감의 깊이를 나타내는 시어는 '삼백예순 날'이다.

28. <답> ②

29. <답> ④

30. <답> 봄, 모란

31. <답> 상실감

32. <답> ⑤